

2023년 4월 6일

디스플레이 / 가전 Analyst 김동원
 02-6114-2913 jeff.kim@kbfq.com
 연구원 박주영
 02-6114-2920 juyoung.park@kbfq.com
 연구원 유우형
 02-6114-2940 Woohyung.yoo@kbfq.com
 연구원 이경아
 02-6114-2111 kyunga.lee@kbfq.com

디스플레이 / 가전

OLED TV, 하반기 수요반등 기대

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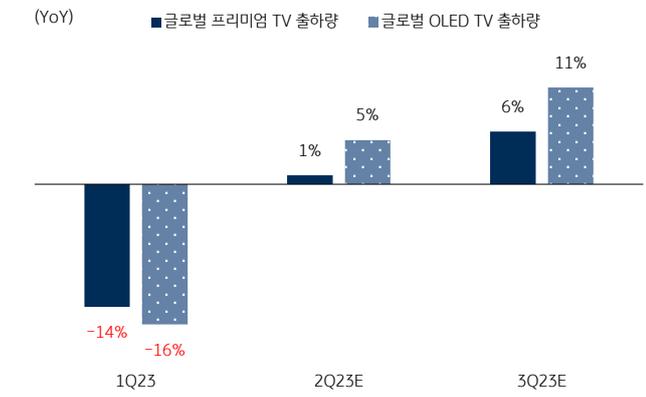
프리미엄 TV 출하량 1분기 바닥,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

— 시장 조사기관인 DSC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프리미엄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14% 감소했다. 그러나 프리미엄 TV 출하량은 1분기에 저점을 확인한 후 2분기 반등세 (+1% YoY)로 전환되고 3분기는 수요 회복 (+6% YoY)이 기대된다. 특히 OLED TV 출하량은 1분기 전년대비 16% 감소했으나 2분기 +5% YoY, 3분기 +11% YoY로 추정되어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 반등이 예상된다.

올해 LG전자 TV 영업이익 4,395억원, +8,039% Yo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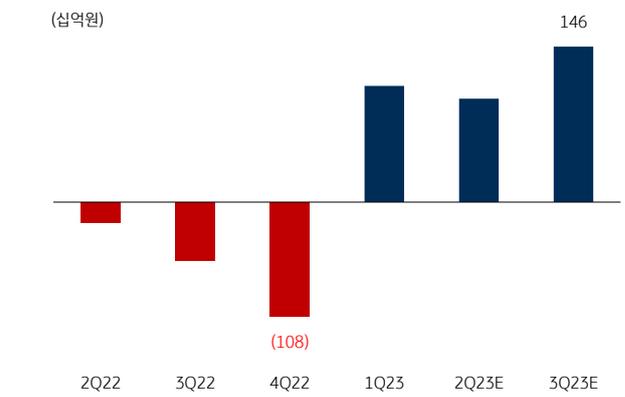
— 2023년 LG전자 TV (HE) 사업부는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적자 (2Q22~4Q22)에서 벗어나 올 1분기부터 흑자전환이 전망되어 1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. 따라서 올해 LG전자 TV (HE)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+81배 (+8,039%) 증가한 4,395억원으로 예상되어 분기 평균 1,0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. 이는 ① 유럽 매출비중이 높은 LG전자 TV (HE) 사업부가 유럽 경기회복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글로벌 OLED TV 수요비중이 50%에 달하고, ② 선제적 재고조정에 따른 유통채널의 TV 재고 건전화가 마케팅 비용절감 요인으로 작용하며, ③ 삼성의 OLED TV 시장 진입이 경쟁심화 요인 보다 글로벌 OLED TV 시장규모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지난해부터 OLED TV 수요부진 영향으로 대형 OLED 패널 가동률 하락 심화를 겪었던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생산라인 가동률도 1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회복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<그림 1, 2>.

그림 1. 글로벌 프리미엄 TV, OLED TV 출하량



자료: DSCC, KB증권 추정

그림 2. LG전자 TV (HE) 영업이익 전망



자료: LG전자, KB증권 추정

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LG전자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삼성전자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